

박영선 “내주 당대표 출마” … 이해찬은 ‘머뭇’

민주당권레이스 가열…후보들 주말부터 출마선언 본격화
송영길 17일 도전 선언 할 듯 … 주자들 광주·전남에 구애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재적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전대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 대회 후보 등록을 오는 20~21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예비·정정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단, 4선의 박영선 의원이 다음 주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 8일부터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백년정당의 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서 출발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역 방문의 발길도 분주히 하면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지난 4일 박범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이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 김진표 의원은 15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17일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문 후보단일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최재성·전혜철 의원의 출마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출마선언 입법설이 돌았던 친노·친문 좌장이자 당내 최다선(7선) 이해찬 의원은 다시

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인영 의원과 설훈 의원도 당내 민평련 의원들과의 논의를 갖는 등 전대 출마를 놓고 막판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해남 출신의 박광온 의원은 호남 당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전대 주자들의 집중적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호남의 지지는

여전히 상장적 의미가 높은데다 당원 규모도 수도권에 이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이 유력한 송갑석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전대 구도와 관련,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여당에서의 호남세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전대 주자들이 보다 구체적인 호남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송영길 “남북 경협 성과내겠습니다”
12일 항공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13일 오전 열차를 이용해 나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운데) 위원장이 12일 오전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송 위원장 등은 /연합뉴스

상임위원장 하마평 무성

‘정무위’ 노웅래·민병두…‘법사위’ 여상규·홍일표 거론

여야는 12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1개를 각각 배정받았다.

일단 민주당 뒷의 정무위원장에는 노웅래·민병두 의원을 거론한다. 노웅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위원장에는 국방통인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으로,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최재성·안민석 의원의 경우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성이 있어 원내 지도부가 당권 도전과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만 선택

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여성 의원들은 여성의회장 자리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뒷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는 판사 출신 3선인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거론된다. 국토위원장으로는 강석호·박순자·안상수·홍문표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예결위원장으로는 김광립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김학용, 홍문표, 홍영철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는 김세연,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명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종구 의원이 유력하다. 반면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장으로는 아직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

김병준·김성원·박찬종·이용구·전희경…주말 최종 확정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 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비대위원장의 자격 등에 관한 토론을 거쳐 이번 주말에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17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장을 추인할 계획이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장인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추천받은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놓고 실무진의 세부 검토와 비대위 준비위의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다섯 분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받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 초선 의원으로, 현재 한국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연소(45岁). 박찬종 변호사는 5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 대책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장을 지냈다. 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바른 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진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 지역위원장 ‘고홍·보성·강진·장홍’ 경선

여수 갑·을, 광양·구례·곡성 오늘 재논의…광주 전역 단수추천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위가 최근 결정한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및 경선 지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위원장은 조강특위가 이미 결정한 대로 모두 단수추천됐다.

동남 갑 최영호 전 남구청장, 동남을 이병훈 전 위원장, 서구를 양향자 최고위원, 북구 갑 강기정 전 위원장, 광산갑 이용빈 전 위원장, 광산을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등이다.

서구 갑 송갑석 의원과 북구를 이형석 시당위원장은 단수 응모로 지역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6·13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5명의 예비 후보 모두가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수 신청지역을 제외한 6곳의 지역위원장장을 놓고는 모두 복수 응모가 이뤄짐에 따라 최소 2곳에서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강특위는 면접 없이 모두 서류 심사를 통해 단수 후보로 선정했고 최고위는 이를 인준했다.

전남에서는 목포 우기종, 순천 서갑원, 나주·화순 신정훈, 담양·함평·영광·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 등이 지역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고홍·보성·장홍·강진은 김승남 전 의원과 신문식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수 갑·을과 광양·구례·곡성은 13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경선보다는 단수 후보 추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19곳의 지역 위원장 선정과 관련, 단 한 곳에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무사 정치개입·민간사찰 못한다

새 기무사령부령 입법 추진

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에서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연합뉴스

싱가포르에 ‘문재인·김정숙 蘭’ 탄생

보타닉 가든서 난초 명명식…역대 한국 대통령 처음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2일(현지시간) 리셴룽 총리 부부와 함께 보타닉 가든을 방문해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윌리엄 왕세손 내외, 모디 인도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임락 전 태국 총리 등 각국 주요 정상들이 명명식을 진행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한류스타 배용준·권상우 등도 자신의 이름을 딴 난초 명명식에 참석했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리 총리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난초 화분에 이름표를 꽂기도 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금관교지와 같은 우정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난초 명명식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방문 귀빈에 대한 환대·예우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에 귀빈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로,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들어진 난초의 이름은 ‘문재인·김정숙 난초(Papilionanda Moon Jae-in and Kim Jung-sook)’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리 총리 부부

명명식에 참석했었다.

/연합뉴스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웅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 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7평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7천만(웅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